



*L'union du peuple
pour rétablir la démocratie*

공화당 인민연합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국민의 연합

창립 헌장

공화당 인민 연합 창립 헌장 제정

(2007년 3월 25일)

한국어

Droits Réservés 저작권 소유

UPR, 26-28 rue Basfroi, 75011 PARIS, FRANCE — www.upr.fr

로마조약 50주년인 2007년 3월 25일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대의 프랑스인들이 회의에 참석해 프랑스의 독립과 프랑스 국민에게 자유를 되찾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국가의 자유를 위한 대변인으로서의 국가인 프랑스의 역사적인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공화당 인민 연합 (UPR)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창립 회원들은 지금의 헌장을 작성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이 헌장은 분석들과 UPR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UPR의 모든 당원들은 이 문서를 읽고 분석 및 결론을 공유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에 적용한다.



1. 프랑스 상황분석:유럽은 문제의 시작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UPR은 다음 두가지 핵심적 사항들로 현존 하는 모든 정치 단체와 구별이 된다 :

- 프랑스의 상황분석;
- 현재 더욱 더 막강해지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법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의 특유의 문제점이 아닐지라도,유럽의 건설은 그들의 주된 원인이다. 우리가 반세기 전부터 믿고 있는 그들의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으면 유럽의 건설은 그 반대로 그 기원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랑스 인들을 이상한 감독아래 두고 ,프랑스 인들의 민주적 선택의 의미를 없애며, 그들의 미래를 부당하게 가로막으며, 그들의 이해영역을 제멋대로 고정시키고, 이유없이 프랑스인들을 멸시와 일종의 절망에 무한적으로 잠식시킨다.

UPR은 21세기 당이며 현재 프랑스와 세계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각하고 있다.그 간부들과 활동가들의 출신, 나이, 교육정도, 직업이 다양하며, UPR 무지하거나 회고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21세기에 태어난 완전히 현재의 신기술에 능숙하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아주 민감하며, 국제적인 문제들의 복합성, 경제적 강압의 무게에, 사람들과 정신구조의 일반적인 발전과 또한 우리 나라의 여러세기에 걸친 개방과 발전에 완벽히 자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프랑스의 문제점을 « 필수적인 개혁 » 늦은 도입이라는 생각이지만,

프랑스인들의 완만함에 기인한 늦음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정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끈질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것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들은 진지하고 철저한 연구를 낳았고, 우선 보기에 이 연구는 이데올로기적인면 없이,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의 성공과 실패들의 여러 실질적인 원인들을 설명하고 있다.세심한 연구에 따른 분석들에 기초 하고 있는UPR의 접근 방식과 아주 다르며단지 유럽 몇몇 국가와 미국만이 아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것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기존의 생각들을 뒤엎는 정확한 분석들

UPR은 예로 유일한 프랑스 정당임 :

- 초국가적인 정부, 즉 유럽 의회에 맡겨진 유럽 대륙 전체 정치 구조 과정은 반대로 민족 국가의 주된 역할인 세계 어디에서도 모방되지 않는다점을 주의하자 ;
- 현존하는 모든 세계 통계학적 수치로 볼때, 나라의 크기와 그 인구 삶의 수준의 상관 관계가 없으며 그러나 반대로 애국심과 경제적 성장사이에상관관계만이 존재 한다는 점을 복돋우자 ;
-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다른 유럽 국가의 회사들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세계의 특히 아시아의 다른 회사들과 최근들어 점점 더 동맹을 맺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생태의 침체적인 경향은 유럽의 건설이 경제와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며 우리에게 « 유럽 승리자들을 건설 » 하게 한다는 논증의 절대적인 그릇됨을 증명한다는걸 명심하자 ;
- 유럽공동체 재판소의 의사결정과정, 프랑스의 소외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비중을 상세히 명확히 한다 ;



- 우리 국민에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프랑스 경제와 공공 재정에 관한 유럽의 건립에 사용되는 원가를 알린다;
- 프랑스가 우리에게 발표된것과 같이 우려되는 재정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통계학적인 비교들을 보여준다;
- 일본부터 시작해 미국,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 경제와 재정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절대적인 필요하다고 소개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것을 밝힌다;

경제와 사회 문제들에 관해 아주 명성한 UPR은 경쟁력과 산업 과학 및 상업의 역동성에 대한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체계와 사회에서의 삶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프랑스인의 합법적인 결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UPR은 정책이 프랑스인들의 명백하고 많은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안고있는 심각한 어떠한 문제도 영구적으로 될수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 그 문제들에 실제로 행사하는 권력이 민주주의 본연의 선택 으로 국가의 자유로운 의도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동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 반대하는 프랑스를 오래동안 통치 할수 없기때문이다.

프랑스의 마비된 상황은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것에서 유래되다- 해외 수호아래 놓인 프랑스 국민

1500년이상 역사동안 전수한 것위에 기초를 두고 UPR은 프랑스 국민은 합법성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외국에 근원을 두고 행사하는 권력을 결코 장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 표현이 장점이 많고,미래 지향적이며, 유토피아적이고, 감미로울 지라도 유럽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유럽연합은 프랑스를 근원적으로 합법성을 알수 없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외국에 기원을 둔 권력, 과두정치의 본질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복종을 단지 일시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그 복종은 오랜기간동안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프랑스인들이 때로는 « 유럽의 건설 »에 동의 했다는 인상을 주었다면, 이것은 몹시 위태한 사항에서 통과된 마이에스트리히 조약의 국민투표때이며, 이러한 동의는 거절할시에 일어날 경우 초래될 아주 나쁜 결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거대한 심리적 압력에 의해 단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얻어진 것이다.

마치 하찮은 일에 연관 되었던 것 처럼, 서둘러 모호함 속에 동의된 통치권의 대규모 이동이 야기할 아주 명확히 초래될 부정적인 결과를 결코 프랑스인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 동포들은 명백하고 그에 맞는 격식을 갖추고 보호 받지 못했다. 외국정치 분야나 국가 방위부분, 사회, 경제, 화폐, 환경등 프랑스 미래에 관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택들은 더이상 그들의 투표에 더이상 의존하지않을 것이다.

그것들이 해로운 것들로 입증되더라도, 이러한 단호한 선택은 프랑스 인들에게 계속해서 외부에 경외심을 갖게 할것이다. 곧 30개의 나라로 재 구성되어 부조리한 연결의 지도자들에 의해« 유럽의 건설 »이 평화로 가는 길이며, 역사의 숙명, 정치의 필요성, 정치적인 시급성, 사회적인 성과, 윤리적 요청 이라는 것을 받아 들일 것을 명령하는 끊임 없는 선전에 압도되어 결국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국민은 그 반대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더 가까에서 검증할 수 있었고 반대 할수도 있었다는 걸 결국에는 더 이상 상상 할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 국민에 의해 선출한 의원들이 프랑스의 전략적 선택에 결정권이 없을 거라는 것을 상상 하지 못했다. 더구나 프랑스의 동의 없이 결합한 27개의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 국민이 반대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과반수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의 결과로 정신의 혼란이 초래되고 점점 더 심해진다. 몇년 전부터 프랑스 국민들에게 제시한 거창한 약속들과 명백히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 « 유럽이 평화 »라는 것을 약속해 주었나?

오히려 예를 들어 이라크전 처럼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전쟁을 일으킬수도 있게 프랑스가 미국을 호전적으로 대하기를 부추인다는 걸 확인시켜준다.

- « 유로가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

반대로 유로존은 경제 불황과 일자리 창출의 적신호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 « 유로는 번영을 가져다 주는가 »?

구매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거나 후퇴되고 미래의 전망은 이보다 더 절망적인 적이 없었다.

- «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산업 강국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 할수 있는가 »?

그러나 유럽의회는 미국 또는 중국이 대범하게 실행하는 것과 비교되게 보호 조치를 막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인도와의 이해 관계에 따른 철강산업 인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섬유, 가구, 장난감, 안경같은 우리 산업 전체 부분의 이전 또는 파기를 정상적인것으로 보거나 심지어 권장하고 있다.

- « 유럽은 더많은 사회 보장을 약속하는가 »?

유럽의회는 인건비가 아주 적게드는 나라의 이주를 좋게 보고, 사회적이고 세무적으로 가장 파렴치한 덤핑을 권장하면서 유럽연합내에서 모든 사회적이고 세무적인 조화를 거부한다.

- « 유럽은 이주흐름을 보다 잘 통제하는가 »?

셴겐 조약은 이와는 반대로 국경의 모든 통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를 사람과 물자가 아무런 통제 없이 지나다니도록 만들었다.

- « 유럽은 우리의 농업을 발전시키는가 »?

브뤼셀은 우리 전통 농업이 실종되게 만들었다.

무서운 오해가 프랑스 정치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요약하자면 끊임 없는 선동으로 유럽 건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금지되고 있고, 더구나 그 원인이 될 만한 모든 생각들을 불경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처참해져서 그결과로 결국은 어떠한 만족도 가져다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십년 동안 이 무시무시한 모순이 초래되었다. 극우파에서 극 좌파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건설의 원칙에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 이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있는 그대로의 유럽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것은 유럽헌법에 관한 2005년 5월 국민투표 캠페인때 언급 되었다. 왜냐하면 관찰자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투표에 반대한 당원들이 있는 그대로의 유럽이 거부 되었음을 명백히 알렸더라면, 만약 찬성한 당원들이 이 같은 거부를 암암리에 알렸더라면 이 헌법이 마침내 필요한 변화를 가져 다 줄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하는 유럽을 위해 찬성표를 던지세요 » « 사회주의 유럽에 찬성하세요 »)

결국 모든 프랑스 지도자들은 유럽의 건설 원리에 찬성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유럽 건설 방법에는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는 « 다른 유럽 »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점점 더 믿음을 잃고 가고 있는 유권자 들에게는 이러한 « 다른 유럽 »은 더 큰 프랑스가 되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유혹적인 전망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럽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유럽은 28개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이해관계의 결과 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터 프랑스는 28개의 나라중 하나의 위원국으로(3,6%차지) 더이상 그 의견이나 가치를 표명할수도 없고, 미국을 추종하는 대다수의 나라와의 모임에도 어떠한 흥미도 갖지 못한다.

UPR는 프랑스 상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이 일반화된 정치적 분열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프랑스 정당들은 이러한 유럽건설의 반대 하기를 원하지도, 시도도 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당 전체는 단지 여론과 언론에 민주주에 혼란스럽고 처참한 인상만을 줄수 있다. : 유럽을 비판하면서도 원칙을 지지하는 것, - 프랑스 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 다른 28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은 없다.

따라서 프랑스 정치 전체는 일관성이 없고, 동원도 힘을 잃고, 모든 극단주의자들에게 길을 열어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를 푸는 정당을 만들어 프랑스 정치 상황을 명확히 해야한다.

2. 유럽 연합의 탈퇴로 인해 필연적으로 국가가 재건되다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먼, 몇몇 약속들만으로 이루어진 유럽대륙의 강제 통일은 프랑스와 다른 유럽국가들을 정치적으로는 독재적이며,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는 용인 할수 없으며, 외교적으로는 호전적이며,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하며, 문화적으로 비인간적인 처참한 유토피아로 향하게 할것이다. 프랑스의 독립과 프랑스 국민의 주권만이 프랑스의 번영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기능, 명성, 평화와 우정을 위한 행동을 지방색이나 종교 구별없이 보장 할 수 있다.

모호함의 종결

UPR 창설의 주된 이유중 하나는 국가 주권을 주장하는 모든 정치적 운동들이 이중적으로 모호한 프로그램들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

- 한편으로는 주권을 다른 주제들중 하나의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다른 여러 주제들 중에 유럽의 문제는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중심적이고, 구체적이며 결정적인 성격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
-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개선될수 있는 유럽의 건설 신화를 받아들이며 또한 « 다른유럽 »에 찬성한다. 그 구성을 명확히 설명할수도 없는 «유럽국가들 »이며 유럽 위원회와 나머지 28개 회원국가들을 기적의 힘으로 집결 시킬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이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다수 의견의 움직임의 한계상황의 첫번째 원인이라고 보면서 UPR는 명확하고 분명한 프로그램을 행동 방침으로 삼고, 프랑스 국민에게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우회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위 유럽 «연합»이라는 데서 프랑스를 되찾고, 유럽 통합, 유럽국가들의 융합 또는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실제로 UPR은 세가지 필수적인 방향에 근거해서만이 프랑스를 재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유일한 정치 움직임이다 .⁽⁴⁾ ;

- 1) 로마 조약을 포함한 모든 유럽 조약을 규탄한다.



- 2) 다른유럽 »의 영구적인 협약들과 함께 하는 « 유럽 건설 »의 개념을 거부한다.
- 3) 아주 명료하며, 시간과 대상에 국한되며, 나라들간 상호주의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 조약들에 의한 주제들에 상관이 없는 주제들의 주권의 위임 금지를 프랑스 헌법에 포함시킨다.

UPR 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그 탁월한 해방범위는 이러한 모호성과 유혹적인 « 주권주의 »의 반복적인 실패를 없앨 것이며 프랑스 국민이 지각없이 바라고 있는 주된 정치의 격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다. 천 오백년 역사에 근거해서, UPR은 국가의 권한을 다시 찾게 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이 주권의 회복은 프랑스 공화국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적합한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을 가져다 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것이다.

좌우의 분열을 초월한 국가 해방 프로그램

UPR의 프로그램은 단지 국가 해방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전통적인 좌우파의 분열을 무시한다.

UPR이 좌우파의 분열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프랑스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이러한 분열은 위급함에 처해졌을때 임시적으로 없어진 것 처럼, UPR 당원들과 프랑스 인들, 경제, 사회 복지에 관한 소위 사회를 주제로한 문제에 동의 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정치인들 사이에 이러한 분열은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프랑스인들이 지각하거나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략적인 결정이 이미 정해졌다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없다는에 모든 사람은 동의한다.

프랑스인들에게 가로챈 이러한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들이 비선출된 유럽중앙은행의 간부들과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미 정해 졌다면, 조세, 해외 이전에 관한 갈등, 퇴직자 연금조달, 이민, 환경등에 끊임없이 논의 하고 심지어 서로 싸우는 쓸모 없는 일이다.

UPR은 또한 프랑스인들이 누가 무엇을 결정할 힘이 있는가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을 방해 하기 위해 유럽건설의 지지자 들에 의해 제시된 필연적인 유혹 중 하나인 « 다른유럽 »을 주제로 한 평범한 주제들의 확산이라고 주장한다.

UPR본질적인 문제가 위태로울때 부가적인 논쟁에 끌려 들지 않기로 결정한 당이다.

따라서 UPR의 회원들이 원한다면 소송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사회에 관한 경제적,세무적,또는 사회적인 선택이나 철학에 관해 자유로울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현장에 부합하기 위해 회원들은 그들이 다루는 주제를 결정하는 프랑스나 외국 결정기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들은 그 나라들과 그 교섭 상대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명시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UPR 회원들은 국가 결정기관들의 무력함을 보일때를 제외하고는 UPR은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따라서 회원들은 어떠한 목적없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결론 : 인간 존엄성을 위한 투쟁

UPR 회원들은 당조직 활동의 합의하에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의 자유를 가지며 윤리 원칙에 따라 종교적 신념이나 출신의 이유로 어느 누구도 공격할수 없다. UPR은 국가와 애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구분한다. 조국과 조국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라는 개념에 밀접하게 연관된 조레스의 생각에 비추어 볼때, UPR은 국가와 국민이 세대간 그리고 사회 계층사이의 민주주의를 실제로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결정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샤를르 드골의 알랭 페이르푸트 문장을 인용하면 «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아닌 한 민족이다, » UPR은 대부분의 갈등이 국가들에서 기인 한것이 아니라 그나라들 중 하나가 제국이 되어 다른나라들이 그 나라의 가치를 따르도록 국가적인 틀을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동시에 모든 민족주의에 거부하는 UPR은 모든 극단주의, 인종 차별주의, 공동체주의를 거부하며, 정교 분리 원칙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을 따른다고 분명히 밝힌다.

1966년 12월 16일의 시민 정치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고유의 권리는 침해 받을 수 없다는데 입각한 유엔 규약 1조의 선언과 같은 이러한 선언이 UPR의 프로그램을 가장 도덕적으로 증명 해준다. UPR은 프랑스국민 고유 권리를 찾아 주고 하 하며 프랑스 국민에게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어떤 구속도 거부할것을 엄명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점에서UPR은 지구 한쪽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 21세기에 국제적인 합법적인 결정기관은 최고의 윤리 원칙이 모든 민족과 국가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최고의 윤리원칙을 지닌 유엔이라 주장한다.

일부 국가만 포함하거나 배제한 유럽제국 또는 대서양권 유럽을 건설 한다는 생각은 비극적 실수 이며 세계 평화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역사적인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대륙에 속해 있던지 그렇지 않던 간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구별 없이 지구의 모든 국가와 모든 종류의 국제 협력을 증진 할 것이다.

UPR은 대륙에 관한 정의는 세계 국가들간의 교류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지리적인 협약에 의한 것이는 걸 상기시킨다.

UPR은 또한 세계문화의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문명 균형의 장으로서 프랑코포니(Francophonie프랑스어 사용운동)를 발전 심화 시킬것이다.

UPR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프랑스의 권리 양도 불가능 원칙과 거부권을 프랑스 헌법에 기재하려는 목적으로하는 이유다.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가 지니는 막중한 힘을 유지하게 할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너머 다른 국가들의 협력의 장에서 프랑스어권 나라들의 비중을 보장한다.

UPR은 마침내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및 박애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고, 정교 분리 원칙, 인본주의,문화 다양성의 존중, 사회 정의와 집단주의의 거부 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수용할수 없다고 선언한다.

UPR은 세계의 획일화된 상품화와 인간을 단순한 경제적 변수로만 보는데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의 총체가 프랑스를 세계의 본보기로 만든다고 본다. 프랑스가 유럽 제국의 치명적인 유토피아에서 벗어나려고 탄원함으로써 UPR은 사회 생활에 대한 인본주의적 이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 해방과 존엄성을 위해 맞서 싸우고 있다.

세번째로 도래하는 천년 초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한은 없다.

